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지이다

#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台洛  
編輯人兼主幹 韓鍾仁  
印刷人 裴成漢  
1976년 11월 1일 창간

## 송조돈종,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중앙종친회  
한태락 회장

존경하는 청주한문의 일가님!  
금년 한해도 어느덧 10월, 아름다운 계절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일상 회복이 되려나 기대했던 마음마저도 무색하게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청주한문의 일가님들께서는 전국 어디에 계시든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가내 두루 건승과 평안하시기를 바라

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종친회 임원 및 일가여러분!  
중앙종친회는 시조묘소(始祖墓所) 및 유적(遺蹟)의 수호보전(守護保存)과 歲享을 봉행하며 崇祖敦宗思想을 涵養하고 宗員의 教養 向上과 도의양양, 후손에 대한 獎學과 啓導 및 文化의 暢達로 韓門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설립된, 성(姓)과 본(本)이 같은 청주한문 일가붙이끼리의 비영리 친목 모임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삼한갑족 명문거족, 우리나라 최고의 성씨로 자부심을 지닌 청주한씨!  
중앙종친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화합하여 종사기강을 확립하고 한문의 발전을 위해 적극 힘을 모아 나갑시다. 중앙종친

회도 심기일전하여 청주한문의 명예와 종사발전을 위해 화합돈목하며 더욱 힘써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원 및 일가여러분!  
금년 신축년 시조 위양공부군의 세향 봉행일은 음력 10월 상달 초하루인 오는 11월 5일(금)입니다. 특히 금년도는 중앙종친회 제27대 회장으로 선임된 후 처음 맞는 해로서 “젊은 후손들에게 뿌리와 정체성을 찾아주고, 종사 계승과 더불어 송조돈종(崇祖敦宗)의 값진 덕목을 체득하고 느끼는 좋은 기회이자 100만 청주한문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지속되는 코로나19의 감염 확

산으로 부득이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여 참사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종현분들과 지역 주민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 깊이 이해해주시고, 비록 참사는 못하시더라도 마음만은 함께하며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사운영과 한문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원 및 일가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소망하신 모든 일들 원만히 성취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중앙종친회장 한태락 드림

## 시조부군의 강당지(講堂址) 복원사업 검토 추진

### 난곡리 옆 방화동 산간에 강도하시던 초당터

청한각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부지 등 편의시설 확충사업도 연계 추진



시조부군 강당지 터 탐방 기념



청한각 경내 수목 조경 및 단장 후 모습

중앙종친회(회장 태락)는 종사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시조부군의 강당지(講堂址) 복원 및 보존사업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시조부군의 강당지는 시조부군의 태지인 난곡리 청한각 옆 산등 넘어 방화동(訪花洞)의 옛 마을 터로 알려진 산간에 시조부군께서 강도(講道)하시던 옛 초당(草堂)터이다.  
한정승 초당터로 불리며 전해오는 시조부군의 강당지의 토사 중에는 천년 전의 기와쪽이 지금까지 남아있어 신기하게 발견이 되고 있으며, 이 초당과 본택(本宅)과의 중간에 산록이 가로 막혀 있음으로 줄을 늘어 연결하고 양쪽 끝에 방울을 달아 손님이나 식사관계 등 용무가 있을 때는 줄을 흔들어 신호를 하였다는 전설은 온 마을이 다 알고 있는 설화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강당지 터는 타인의

소유인바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고 강당지 진입로 확보 문제도 해결해야 할 최우선 선결과제이다.  
중앙종친회 태락회장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집행부 임직원 및 조에 있는 일가분들과 청한각 및 초당터를 수 차 방문하여 초당터 복원에 필요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청한각 삼문 앞까지 대형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진

입로를 확장하고 주차장 부지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확보,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시조부군의 유적과 관련한 충청권 유적탐방지로 명소화하고, 매년 4월에 봉행하는 시조부군 탄신제를 시조부군 세향봉행 수준의 축제행사

로 확대하고, 지방문화제 지정 추진 등에 필요한 기반 확충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업예산 확보와 최종적인 결정은 행정소관 관계부처와 지역주민, 종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청한각 경내 수목을 조경한 후 잔디 정비와 잡초 제거, 청소, 정리 등을 통해 경내를 정갈하게 재 단장하였다.

## 올 신축년 시조 세향 봉행일은 양력 11월 5일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과 관계당국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엄숙히 봉행 하겠습니다.  
전국 청주한문 종현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변동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 등 매체를 통해 안내 하겠습니다」

# 문양공부군(文襄公 諱 繼美, 14세) 탄신 600주년

## 문양공 묘역에서 600주년 탄신제 엄숙하게 봉행

2021년 신축년(7월 6일음 5월 27일), 문양공(휘 계미)부군의 탄신 6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문양공부군의 주요 유사 및 행적 등 관련내용을 게재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공은 18세에 공신(功臣)의 아들로 충의위(忠義衛)가 되어 부사직(副司直)에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겸하였다. 형조 도관좌랑(刑曹 都官佐郎)이 되었을 때 명나라 사신의 수행을 했고 사복시(司僕寺) 소윤(小尹)을 거쳐 세조 즉위(世祖 卽位)때 좌익공신(佐翼功臣)이 되어 左右承旨를 역임하고 이어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서원군(西原君)이 되었다.

1461년에 平安, 黃海, 江原道 안집도 순찰사(安集都 巡察使)로 임명되고 1463년에 돌아와서 자헌대부 이조판서(資憲大夫 吏曹判書)가 되었다. 1465년 정헌대부 사복시정(正憲大夫 司僕寺正)이 되어 오위도총부 도총관(五衛都總府 都總管)으로 옮겼고 1467년에는 승정대부 평안도 병마수군절도사 겸 영변대도호부사(崇政大夫 平安道 兵馬水軍 節度使 兼 寧邊大都護府使)가 되었다.

이는 地理的으로 명나라와 접해있고 산적들이 출몰하는 험지임으로 위중대신(威重大臣)으로 보임(補任)한 것이다. 이 해에 이시애(李施愛)가 반란을 일으켜 함경도(咸鏡道)가 병란(兵亂)에 휩싸이자 공이 스스로 6천기(六千騎 : 말탄병사 6천명)를 모아 반란군(叛亂軍)을 격퇴(擊退)하였다.

그 공(功)으로 적개공신(敵愾功臣)을 삼고 승록대부 의정부 우찬성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崇祿大夫 議政府 右贊成 兼 五衛都總府 都總管)을 제수(除授)하고 부친(父親 : 惠)은 순충적덕보조공신대광보국 승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문춘추관홍문관관상감영사세자시강원사서원부원군(純忠積德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藝文春秋館弘文館觀象監領事世子侍講院師西原府院君)에 추증(追贈)하였으며 공의 配位 城平 尹氏는 安城郡夫人을 封했다. 1469년에 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이조판서(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左贊成 兼 吏曹判書)가 되고 1471년에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책봉(策封)되어 순성명양경제(純誠明亮經濟)라는 호(號)가 하사(下賜)되었고 이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었다.

1471년 12월에 공이 51세에 하세(下世)하니 조정(朝廷)에서 하룻동안 정사(政事)를 휴무하고 상장(喪葬)을 갖추어 다스리게 하고 문양(文襄)이라 시호(諡號)를 내렸다.

그리고 다음 해 1472년 12월에 사패지(賜牌之地 : 나라에서 내린 땅)인 現在の 墓域에 禮에 따라 安葬하였다.

配位인 貞敬夫人 封安城郡夫人 坡平 尹氏와 合葬이다. 墓의 封墳에는 本來 護石이 없었으나 現世에 와서 이미 오래 전에 잃었던 長明燈復元과 함께 이룩한 것이고

生 1421년(세종 3년, 辛丑 5월 27일) ~ 卒 1471년(성종 2년, 辛卯 12월 23일)  
조선전기 오위도총관, 좌찬성, 이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字 : 공보(公甫)  
조부 : 문간공 상경(尙敬) 영의정(領議政)  
부 : 청산군 혜(惠) 함길도 관찰출척사(咸吉道 觀察黜陟使)  
모 : 판중추 양혜공 성달생(成達生)의 따님  
배위 : 윤번(尹璠)의 따님, 세조의 비 정희왕후(貞熹王后)의 언니



문양공 묘역에서 탄신제 봉행기념,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시묘동)



문양공 영정



문양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시묘동)

長台石도 一部 改石한 것이다. 墓祀는 寒食節과 秋夕節에 奉行한다.

공의 眞影은 壬辰倭亂 時에 祀宇와 함께 燒失되어 1982년(壬戌)에 王朝實錄, 政院日記, 輿地勝覽 肖像大典 등에서 考證하여 秋峯 金進龍 畫伯이 摹寫하여 奉安하였다.

공의 祀宇인 文襄祀는 永世不祧廟이나 壬亂때 燒失되어 位牌는 그동안 宗孫의 家廟에 奉安하여 오다가 1980년 9월에 重建하여 移侍奉安하고 있으며 廟祀는 文襄公 忌日인 음 12월 23일과 配位 尹氏의 忌日인 음 9월 23일에 奉行하며 正月初一日에는 茶禮를 드린다.

碑面刻 上部에 두른 篆에는 墓碑銘이라고 되어 있고 이 碑文은 영산부원군 김수온(永山府院君 金守溫)이 撰하여 墓下階 左側에 세웠던 것을 이곳에서 百步쯤 直方向 下側에 옮긴 것이다. 齋室앞 언덕에 새로 세운 碑는 當碑가 風磨雨洗하여 字劃을 分看하기 어려워서 세운 것이다.

비문에는 공은 용모가 괴위(魁偉) : 체격이 크고 훌륭한 기우(氣宇) : 기개와 도량(道量) : 마음이 너그럽고 큼 하였으며 말과 웃음은 많지 않았으나 대

인(對人)에는 늘 화기(和氣)가 감돌아 환심을 샀다고 한다.

11세 때 부친이 별세(別世)하여 어머니의 영(靈)을 어김이 없었고 형제(兄弟)가 우애(友愛)하였으며 친척과는 돈목(敦睦)하게 지냈다. 지위(地位)가 있어도 교만하지 않았고 전형(銓衡 : 吏曹判書)을 두 번이나 했어도 항상 공평하게 인사(人事)를 처리하여 칭송을 받았다. 지방관장(地方官長 : 평안, 황해, 강원(平安, 黃海, 江原))을 맡고는 토지를 개간케 하고 제방을 쌓고 도량을 쳐가며 농사가 풍년들게 하여 고향을 떠났던 유민(流民)들이 돌아오니 수만(數萬)에 이르렀다. 평생에 집안일을 염려해 본 일이 없고 王이 國事를 처리함에 있어 공에 의지함이 많았으니 공은 충국대신(忠國大臣)이라 하였다. 명(銘)에서 공훈(功勳)이赫赫(赫赫)하여 선친(先親)도 몽은(蒙恩)하고 황무지(荒蕪地)를 개간(開墾)하여 民生을 도왔으며 公事에 臨하여는 德으로 다스리니 훌륭한 명망(名望)은 千年도록 傳하리라 했다.

本來 齋室(齋室)은 宗家(宗家) 별채를 썼으나 이 별채와 宗家 全體가 철물(鐵物)을

일체(一切) 쓰지 않고 순수한 木材에 짜리 나무 못을 主釘으로 한 평가초개(平家草蓋) 건물로 500여 년을 손색없이 문화재(文化財)로서의 가치(價値)가 높은 유물(遺産)이었으나 현세인(現世人)의 무지(無知)로 철거한 자리에 1980년 9월에 신축하여 현재에 이른다.

### 문양공(文襄公)에게 내린 단서철권교지(丹書鐵券敎旨) 해석문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신하(臣下)된 자 정성을 다하여 제왕(帝王)을 보위하고 덕을 높이면 그 공을 보답하는 것이니 이는 국가의 떳떳한 경륜이요 고금을 통한 의리이다.

오직 경(卿)의 도량(度量)이 하해(河海)를 안은듯하고 성품(性品)은 충양(忠良)을 온포(蘊抱 : 가슴속에 재주를 품음)한 것 같이 일찍이 향화지성(向化之誠)을 기울였으며 나라 지키는 데에 계속한 정성은 과인이 실로 소중히 여기는 바다.

어느 날 적신(賊臣) 이시애(李施愛)가 역적을 모의, 장재(將宰)를 살해하고 사졸을 구류하며 군사와 함께 발호(跋扈 : 제멋대로 날뛰)하여 죄가 충천하거늘 특별히 귀성군(龜城君)이 준(浚)과 제장을 파견하여 토벌하니 경(卿)과 선산군(善山君) 김교(金嶠)가 합심하여 추적(추적)하는데 먼저 삼군기병(三軍奇兵)으로 출동하여 대첩(大捷)하니 원홍(元晞 : 李施愛)의 머리를 베어 삭방(朔方)이 평정되었다.

그 공이 심히 크므로 과인이 그 공훈을 못잊어 경(卿)에게 적개이등공신(敵愾二等功臣)에 책(策)하고 각(閣)을 세우고 영정(影幀)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고 그 부모처자(父母妻子)에겐 삼계위(三階位)를 올리고 적장자(嫡長子)는 대대(代代)로 그 녹(綠)을 계속 주며 자손(子孫)은 적개이등공신 한계미(敵愾二等功臣 韓繼美)의 후손으로 비록 죄(罪)가 있어도 영세(永世)토록 사죄(赦罪)한다 하고 아울러 반당 칠인(伴尙 七人 : 從者), 노비 십구(奴婢 十口), 구사 오구(丘史 五口 : 官奴), 전 팔십결(田 八十結), 은 삼십량(銀 三十兩), 의 일습(衣 一襲), 안구내구마 일필(鞍具內廐馬 一匹)을 줄 것이요 자손이 없는 자가 있으면 생질여서(甥姪女婿)에게도 일계위(一階位)를 가작(加爵)할 것이며 같은 공이 있는자는 후에 병록토록 하라 기록하였다. 어희라(슬프도라). 산하에 맹세코 그 꽃다운 이름과 그 업(業)은 후손에게 전하여 무궁토록 하라 하고 이에 교시(敎示)를 내려 그 공을 다 알게 하노라.

성화삼년(成化三年 1467)10월 일  
한편 문양공과종중(회장 석희)은 지난 7월 6일(음 5월 27일) 문양공(휘 계미)부군의 탄신 600주년을 맞아 관산동 소재 문양공 묘역에서 코로나로 인해 집행부 임원으로 최소화한 가운데 경건 엄숙하게 600주년 탄신제를 봉행하였다.

# 문정공(14世.諱 繼禧)부군 및 배위 정경부인 함양여씨 불천위 기신제 봉행

## 성남시 분당구 울동 문정사(文靖祠)에서



문정공의 묘, 성남시 분당구 울동

문정공파종회(회장 석구)는 지난 9월 25일(음8월19일) 오전11시 성남시 분당구 울동 문정사 영모재(永慕齋)에서 석구회장을 비롯해 후손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정공(휘 계희)부군 539주기 기신제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초헌관에는 기선일가, 아헌관에는 병철일가, 종헌관에는 춘섭일가, 축관은 동역일가 각각 분방되어 동헌일가의 집례로 봉행하였으며, 제례 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행사일정을 종료하였다. 회장단은 기신제 전에 묘소사초와 계단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묘역을 말끔히 단장하였고, 성남시의 협조로 묘역신도비 안내판을 새로 제작.건립하였다.

문정공부군은 함길도 관찰출척사를 지낸 청산군(휘 해)의 셋째 아들이고 조선 개국공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문간공(휘 상경)의 손자이다. 1423년(세종 5년)에 태어나셨으며 字는 子順이다. 1441년(세종 23) 진사시에 합격하고, 1447년 식년문과에 정과로 급제, 승문원정자에 보임되었다가 곧 집현전정자로 뽑혔다. 이어 부수찬·지제교로서 경연관(經筵官)을 겸하고 부교리에 이르렀다. 세조가 즉위한 뒤로 신임을 두터이 받아서 1455년(세조 1) 우문학으로 세자에게 경학을 가르쳤다. 이듬해 좌필선·집의, 1457년 예문관직제학·지제교 겸 춘추관기주관으로 문헌의 직을

역임한 뒤 세자우보덕(世子右輔德)을 겸하였다. 1458년 좌보덕·병조지사(兵曹知事)·참의, 1460년 우승지, 1461년 좌승지·공조참판·중추원부사, 1462년 이조참판으로서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을 겸하였다. 이듬해 인순부원(仁順府尹)을 거쳐 1465년 이조판서, 1467년 중추부사가 되었다. 1468년 세조가 병환이 심할 때 약을 조제하는 임무를 맡았고, 승하 전 날에는 세조의 지시로 대보(大寶: 임금의 인장)와 곤면(袞冕: 임금의 정복)을 세자에게 전수하는 일을 주관하였다. 1469년 예종이 즉위하자 남이(南怡)를 제거한 공으로 추충정난의대공신(推忠定難翼戴功臣) 3등에 책록되고, 서원군(西平君)에 봉해졌다. 이듬해 성종이 즉위해서는 지경연사(知經筵事)를 겸하고, 1471년(성종 2) 순성명량경제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 2등에 책록되었으며, 1478년 좌찬성에 이르렀다.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서 세종 때 집현전 장서각(藏書閣)에 상주하다 시피 하면서 박람강기(博覽彊記)로 쌓은 학식이 벼슬길에 큰 바탕이 되었다. 학식과 단정한 성품으로 주위로부터 추앙되어 존중히 여김을 받았으며, 특히 서거정(徐居正)과 교분이 두터웠다. 1482년(성종 13년) 졸하셨으며 대광보국 송목대부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문정공파종회 회장 석구, 총무 정석)



기신제 봉행 기념

한편 지난 6월 24일(음 5월 15일) 중앙회 태락회장, 진수문간공파회장, 석구문정공파회장을 비롯 3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구 울동에 소재한 문정사(文靖祠)에서 문정공(諱 繼禧)의 배위이신 정경부인 함양여씨(貞敬夫人 咸陽呂氏)의 566주기 기신제(忌辰祭)를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초헌관 동헌일가, 아헌관 태락회장, 종헌관 상대일가」

석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참석해 주신 중앙종친회 태락회장 및 임원분들과 일가분들께 감사를 전하였다.

문정공의 배위이신 정경부인 함양여씨는 문정공부군께서 근검절약(勤儉節約)과 제민구휼(濟民救恤)정신으로 녹봉은 물론 공신전 등에서 들어오는 수익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이웃

들에게 나누어 주어 한(韓)정승이 사시는 곳인 고암리에 가면 굶주리지 않는다는 세간의 전담으로 후일에 안암동이라는 지명으로 바뀌는데 크게 일조하신 분이다. 또한 정승의 반열에 계시면서 청백리(淸白吏)의 도리를 잊지 않고 몸소 실천하신 문정공으로 인하여 가난을 면치 못 하시면서도 네 분의 자식들에게 군자의 도리를 바르게 가르쳐 훗날 부끄러운 오명 없이 훌륭한 선비정신으로 자기 개척을 한 분들로 명성을 남기게 키우신 은 후하면서도 법도를 제일의 덕목으로 실행하신 선구자적인 맹렬 여성이셨다. 그러한 덕에 문정공께서는 졸기(卒記)에 성인의 반열에 인물로 평가받으신 조선왕조 상신중에 유일한 분으로 추모되고 있는 것이다.

(문정공파정석총무, 동역고문)

# 첨사공(僉使公 諱 忠常 14世) 제향 봉행

## 참의공파 진도종친회, 충현사에서 매년 3월 삼짇날



제향 봉행 기념, 충현사

전남 진도군 참의공파종친회는 진도 고군면에 소재한 충현사에서 매년 음력 3월 삼짇날 정일에 첨사공(휘 충상)의 제향을 봉행하고 있다.

금년도 제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용구(33세), 권준(34세 총무), 철진(34세 집례), 판준(진도군회장, 독축), 병림(33세 고문), 병연(33세 우집사), 병준(33세 좌집사)의 약간 명의 일가가 참석하여 경건하고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첨사공은 참의공(參議公 諱 碩)의 7형제 중 여섯째 아들이고 서성부원군 영정(西城府院君 永疇)의 손자이다. 첨사(僉使: 僉節制使의 준말)를 지냈다. 배위(配位) 남양 홍씨(南陽 洪氏)는 도사 서(都事 瑞)의 따님으로 묘는 선영하 상하조(先塋下上下兆)이다. 아들은 별좌 회(別座 滄), 참의결(參議 潔)이다.

묘소 및 사당(충현사)은 전남 진도군 고군면 석현리 소재 (진도종친회 33세 용구)

# 동역일가, 「聖君으로 이끈 聖人」 출간



문정공문중의 동역(전)회장이 최근 문정공(휘 계희.14세)부군의 연보와 약력, 참여 유문(遺文), 불경언해(佛經諺解) 참여 인명(人名), 응제시(應製詩), 불경언해 및 기타 발문, 기타 명(銘)기(記), 각종 문집의 문정공 기명록(記名錄), 재실건축을 위한 통문과 문정사 영모재 중창기, 문정공 형제의 관직과 같은 때에 같은 일을 하신 선현들의 약기 등을 기술한 '성군으로

이끈 성인'을 출간(도서출판 현대)하였다. 표지(사진)는 10만여년을 전통적으로 이어온 한민족의 전통사상인 칠성신앙(七星神仰)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韓)자를 7개로 하고 각자를 무지개 색으로 표현하였다. 그림을 읽어보면 임금 왕자가 되므로 天父(하늘은 아버지), 地母(땅은 어머니)라는 천손이 계승해온 전통정신에서 파생된 忠, 孝, 德, 禮를 근간으로 한 仁, 義, 禮, 智, 信의五常을 생활신조로 하여 몸 바쳐 국가에 충성하고 먼 조상까지 정성으로 모시는 지극정성의 효를 常行하여 전 세계 인류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민족을 강조함이다.

# ‘세계 최초 자율주행차 개발’ 한민홍 박사 시대 앞서간 ‘세계 최초 자율주행 연구가’



한민홍박사 방송화면 캡처

## 세계최초 자율주행차를 개발한 한민홍박사

30년 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을 시연한 인물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보다 훨씬 빨리 자율주행을 선보였다. 테슬라가 2015년 자율주행 시스템을 발표했을 때, 대한민국은 1993년 세계 최초 자율주행을 공개했다.

한민홍박사는 미국 텍사스A&M주립대 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자율주행 잠수정 개발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자율주행을 자동차산업에 접목하기로 결심한 뒤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고려대 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1992년에는 대학교 운동장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발표를, 1993년에는 학생들과 함께 ‘레벨3’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해 세계 최초로 도심 자율주행을 실현한데 이어 1995년에는 시속 100km로 비가 내리는 경부고속도로를 자율주행 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전북 임실 출생인 한민홍박사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네소타대 산업공학 석사, 조지아공대 산업공학 박사, 텍사스 A&M 주립대 교수, 포항공대 교수, 고려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고려대 퇴임 후엔 ‘고대 공대 영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는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첨단차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4월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시간의 마술사들’ 특집 편에 출연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개발에 성공한 과정을 소개해 국민적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킨 한민홍박사는 “프랑스 초기 자율주행차를 만들어 준 것이 한국이며, 독일 유명 자동차 회사가 직접 배워가기도 했다”고 말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그는 “독일 유명 자동차 회사가 MOU를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그걸 독일이랑 계약하면 얻을 게 크게 없었다. 우리가 개발한 걸 우리가 지키려고 했다. 그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고 털어놓기도 하였다.

# 龍澤(회양공문중 종손)일가 팔순기념 가족작품 전시회 내가 걸어온 길고 먼 이야기들, 자서전도 출간



용택(김포 회양공파, 34世)일가의 팔순 기념 가족작품 전시회가 인사동 소재 백악미술관에서 일주일 간 개최되어 일가와 지인분들의 많은 축하를 받았다.

지난 8월 12일부터 개최된 이 전시회는 용택일가의 팔순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부부와 아들(영준)의 작품으로 서예, 사군자, 문인화 등 100여 점을 전시하였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지금도 붓을 잡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용택일가는 서예는 한우창님께 7년, 정하건남께 23년을, 문인화는 정순태님께 6년간 사사를 받았으며, 승천서회전 21회 작품의 작품활동을 하였다.

배우자(金海 金鎬順)는 중등교장으로 정년퇴임한 후 그림도 자유롭게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며 생활하면서 자연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고 부군의 팔순 기념으로 전시회를 같이 하게 되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용택일가는 팔순을 맞아 자전적 이야기 ‘내가 걸어온 길고 먼 이야기들’(사진)을 출간하였다. 이 글을 통해 고향 김포, 종중과 선조, 사회생활, 가족에 관한 지나온 이야기 등을 진솔하게 풀어썼고,

가족과 후손들에게는 멋지고 화려하지 않음에도 세계로 뻗어 나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묵은 지처럼 삶을 살아 달라는 당부를 전하였다.

용택일가는 연세대 정치학석사, 국회의원 비서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감사 등 역임



## 정당공파 22世 泰素후에 가족공원 조성

정당공파 22世 태소후손의 강릉화수회는 강릉 경포대 인근 선산에 가족공원을 조성하고 선대묘역의 이장 등 가족 묘 조성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친지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별초, 시제 등의 경비 절감이 됨은 물론, 선대와

현대, 후손에게 물려줄 보금자리를 조성함에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승우일가가 소감을 전해왔다.

본 가족공원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5천평의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조성이 되었다고 한다.

(강릉화수회 승우일가)

## 운영회비 및 종보구독료 납부 안내

존경하는 임원 및 일가여러분!

코로나19의 감염 및 확산이 지속되고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임에 송구한 마음으로 운영회비 및 종보구독료 납입을 부탁드립니다.

임원 및 일가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운영회비와 종보구독료는 청주한문 100만 종친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중앙종친회의 운영 재원입니다.

임원 및 일가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예금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 종보에 첨부된 지로용지 이용(입금자 성명 및 주소 등 기재)
- ▲ 문의 : 중앙종친회 02) 720-6370/1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중앙종친회 계좌번호 안내

- ◆회비·헌성금·종보대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예금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인터넷족보 수단금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예금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무강왕릉수호기금 국민은행 624201-04-487233 예금주 무강왕릉수호법대책임위원회

# 말이 씨가 된다. 사람은 말대로 살고 있다.

### 한효섭 고문 (사진:대한민국 헌정회 부산지회장)



게 살았던 유전자  
있기 때문이며 이  
것이 나의 운명이고  
삶이며 인생이다.  
보다 더 성공하고  
행복해 지려면 이  
기심을 버리고 이  
타심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공덕과 나눔  
과 봉사를 실천하  
여야 한다고 믿  
는다. 그래야 자  
녀들도 후손들도  
보다 더 나은 행  
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한다.  
반드시 노력하  
는 만큼 뿌린 대  
로 그 결과가 자  
신이나 아니면  
자녀와 후손에  
게 나타난다. 그  
러므로 말과 행  
동을 조심하고  
글과 문자와 표  
현을 조심해야  
한다.

말은 자신의 생각을 소리로써 표현하는 것이고 글은 자신의 생각을 문자로써 표현하는 것이며 음파는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에서 발산하는 에너지로 표현하고 또한 그렇게 변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글 쓰는 대로, 표현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자신도 모르게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변해간다. 그런 모습대로 살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말, 좋은 글,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이타심으로 선하고 베풀며 살아야 성공하고 행복하며 그들의 후손도 행복해 진다고 말한다.

인간은 유유상종의 법칙 속에 끼리끼리 생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끼리 살게 된다.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과 함께 살려면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으로 좋은 교육과 공적을 쌓아야 하며 선한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좋은 사람이 이기심으로 나쁜 말과 생각과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 나쁜 사람과 살게 된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한글음파이름학이론이며 음파에너지 법칙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팔순을 바라보며 쌓은 경험과 임상실현을 통해 믿고 확신한다. 대부분은 오늘날 살고 있는 모습이 과거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흔적이다. 이렇

내가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 또는 자녀들과 가족이 잘못되고 불행을 당하고 이웃과 사회로 부터 외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원인과 이유가 있기 마련이며 그 근본은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신이 알게 모르게 악행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상처주고 이기심과 독선과 아집으로 타인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공자도 자신의 불행은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말했다.

나쁜 말을 하고 나쁜 글을 쓰고 타인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음해하고 돌팔매를 던

지면 순간은 좋고 출세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자기에게 되돌아오고 몇 갑절 자녀와 후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요즘은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면 온갖 비난과 음해로 서로 싸우고 있고 가짜뉴스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다. 가짜뉴스와 타인을 비난비방하며 폄하하고 중상모략하고 음해하여 출세하고 한풀이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자신과 그 자녀와 가족에게 돌아가고 더 큰 불행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진리이다. 이것은 불변의 음파에너지이론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과거에 나쁜 말, 나쁜 글, 나쁜 문자, 나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가 삼대 안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당대 자신에게 바로 나타나 고통과 불행을 당한다. 사리사욕으로 출세하기 위하여 감언이설하고 음해하고 비방하고 폄하하는 자는 일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반드시 폭망한다. 뿌리대로 거두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것은 진리이다. 정치인이나 지지자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비방하고 음해하고 과거를 말하지 마라. 이타심으로 자신의 소신과 정책과 미래를 설계하고 말하고 지지를 받으라. 결과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온갖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

독선과 아집으로 내로남불하며 거짓말과 비난과 음해로써 정체성도 역사관도 철학도 자존심도 없이 죽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줄도 모르며 혼자 살고 출세하겠다는 사람들과 지지자들의 언행과 정신을 보면 매우 안타깝고 격정되며 한국 한국인의 미래가 어둡고 두렵기만 하다.

필자는 눈물로써 간절히 호소한다. 유튜브나 방송을 통하여 괴를 토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고 자기지지파를 지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온갖 욕설과 비난과 악점을 비난하고 흑평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지지자를 도우는 전략이며 정의이고 애국인양 하는 사람들, 그것은 국익과 국민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일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고 사리사욕과 이기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과 그 자녀와 후손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가 최소한의 애국심과 양심이 있다면 또한 진정으로 자신이 그의 자녀와 가족의 고통과 불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좋은 말 좋은 글을 사용하고 타인을 욕하지 말고 존중하고 말이라도 문자라도 생각이 라도 선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고 간절히 부탁한다. 말이 씨가 되고 문자가 독이 되고 나쁜 생각이 화가 되어 자신과 가족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과 말 대로 문자대로 생각대로 나쁜 것은 자신과 자녀에게 먼저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성공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 함께 감사하고 칭찬하며 좋은 말만 하면서 다함께 잘 살자고 호소한다.

## 장학재단 독자운영 및 정상화 추진

### 집행부 임원 및 단위장학회장 연석회의 결의

중앙총친회(회장 태락)는 지난 7월 22일 중앙총친회 회의실에서 태락회장, 추태(전)회장을 비롯 길수, 준석, 강, 연동, 삼랑, 진수, 석구, 춘희, 갑수, 동경회장 등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집행부 임원 및 단위장학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종사 현안 및 장학재단의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통해 관련 의안을 확정 의결하였다.

태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장학재단 정상화 방안 등 종사 현안 논의를 위해 지난 5월 말에 이어 제2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밝히고 경향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임원분들께 감사인사와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지속됨에 중앙회 종사 또한 추진 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회장단과 임원분들을 중심으로 전국의 많은 종원분들께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와 홍보로 성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추태(전)회장은 코로나 시국에 특

히 건강관리에 유념하고 장학재단을 분리하고 독자운영 추진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성원해 줄 것을 독려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상호 간 다양한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장학재단을 분리하여 독자 운영으로 뜻을 모았으며, 장학재단의 분리와 독자 운영에 관한 추진사항은 장학재단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재철)로 전권을 위임하여 금년도 중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중앙총친회는 지난 10월 14일 집행부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화합 돈독 도모 등 원만한 종사운영을 위해 섭외부회장에 일용(참판공파), 제전부장에 상열(문양공파), 장학부장에 인숙(충성공파)일가를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한 후 시조부군 세향봉행 등 종사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중앙총친회는 종사보감 등 책자의 구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집행부 임원 및 단위장학회장 연석회의



좌로부터 상열부장, 중앙회장, 일용부회장

## 인터넷족보 하반기 업데이트 일정 안내

11월 10일까지 접수된 수단신청서에 의거, 하반기 인터넷족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출생, 사망, 학력, 경력, 오탈자 등 행적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분들은 수단신청서(양식 및 작성요령은 홈페이지 참조)를 중앙총친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족보 검색 및 열람

1. 청주한씨중앙총친회(www.cheongjuhan.net)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 검색창에 청주한씨중앙총친회 검색 - 홈페이지 안내
2.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인터넷족보 항목 클릭
3. 인터넷족보 열람 클릭 (예빈윤공파는 우측에 별도)
4. 족보 검색  
본인 이름, 부명, 세(世), 파명 기재 및 체크 후 찾아보기 클릭  
성은 빼고 이름(족보에 입력된 이름)만 입력  
족보에 입력이 안된 경우 검색이 안됨  
부, 조부, 증조부, 고조부 등 직계 계보 순으로 검색
5. 문의사항은 청주한씨중앙총친회 사무실(02-720-6370)로 연락

운영회비(6~9월) 단위:원	
이름	금액
규백 부회장(회양공파 회장)	1,000,000
덕규 부회장(양철공파 회장)	1,000,000
만교 부회장(장도공파회장)	1,000,000
상량 부회장(참판공파회장)	1,000,000
근우 부회장(세마공논산종중회장)	500,000
대석 청장년부회장(경기 의정부시)	500,000
동경 부회장(부산시회장)	500,000
만준 부회장(경남도회장)	500,000
재철 위원장(경기 고양시)	500,000
종호 제전부회장(인천 남구)	500,000
동협 자문위원(경기 평택시)	200,000
창섭 자문위원(인천 광화군)	200,000
규석 겸임이사(경기 김포시)	200,000
기달 겸임이사(서울 강북구)	200,000
기승 겸임이사(충남 서산시)	200,000
봉 겸임이사(전북 전주시)	200,000
시근 겸임이사(충무부장)	200,000
현섭 겸임이사(경기 시흥시)	200,000
광욱 고문(서울 강남구)	100,000
기형 겸임이사(세마공 총무)	100,000
세동 겸임이사(세마공 재무)	100,000
영섭 겸임이사(경기 김포시)	100,000
종언 겸임이사(서울 종로구)	100,000
종원 겸임이사(인천 계양구)	100,000
규아 운영위원(경기 김포시)	100,000
기덕 운영위원(강원 춘천시)	100,000
기선 운영위원(서울 성동구)	100,000
기화 운영위원(경기 화성시)	100,000
만홍 운영위원(서울 송파구)	100,000
<b>합 계</b>	<b>9,600,000</b>

일반찬조헌성금(6~9월) 단위:원	
이름	금액
태락 중앙회장	3,000,000
동경 부회장(부산시회장)	500,000
안동(대전 대덕구)	100,000
<b>합 계</b>	<b>3,600,000</b>

개인증보비(6~9월) 단위:원	
이름	금액
태이(서울 관악구)	300,000
종호 제전부회장(인천 남구)	100,000
기현(서울 노원구)	60,000
기성(경기 김포시)	50,000
기창	50,000

대봉(울산 중구)	50,000
시근 겸임이사(충무부장)	50,000
용수(경기 고양시)	50,000
원교(서울 송파구)	50,000
재윤(서울 송파구)	50,000
충호(강원 원주시)	50,000
광수(대전 서구)	30,000
덕연(전남 나주시)	30,000
도수(충남 청양군)	30,000
동익(서울 강동구)	30,000
상근(경북 구미시)	30,000
상복(경기 안성시)	30,000
상은(서울 관악구)	30,000
상준(경기 군포시)	30,000
상준(서울 강동구)	30,000
석우 겸임이사(경기 용인시)	30,000
성규 운영위원(서울 구로구)	30,000
성두(울산 북구)	30,000
영섭(전남 나주시)	30,000
원렬(전북 완주군)	30,000
일웅(경기 남양주시)	30,000
장선(전남 보성군)	30,000
재영(대구 수성구)	30,000
정웅(서울 송파구)	30,000
정웅(전남 보성군)	30,000
정준(서울 은평구)	30,000
조정(서울 용산구)	30,000
진희(경북 김천시)	30,000
천석(서울 종로구)	30,000
태식(경기 안양시)	30,000
태진(경북 경주시)	30,000
갑준(서울 성북구)	20,000
경남(부산 서구)	20,000
규덕(경기 부천시)	20,000
기준(서울 성동구)	20,000
길수(세종시 전통면)	20,000
남희(충남 청양군)	20,000
대규(경기 부천시)	20,000
덕수(서울 금천구)	20,000
동협 자문위원(경기 평택시)	20,000
두원(강원 영월군)	20,000
두현(대구 북구)	20,000
만석(서울 중랑구)	20,000
만성(경기 평택시)	20,000
명교(서울 중구)	20,000

병진(전북 남원시)	20,000
상범(경기 용인시)	20,000
상봉(서울 종로구)	20,000
승욱(광주 북구)	20,000
애삼(서울 서초구)	20,000
영수(광주 광산구)	20,000
윤열(경기 의왕시)	20,000
응배(강원 춘천시)	20,000
인우(충남 당진시)	20,000
재관(서울 성동구)	20,000
재술(전북 김제시)	20,000
재언(서울 성동구)	20,000
정석(서울 금천구)	20,000
준석(경남 하동군)	20,000
창섭 자문위원(인천 강화군)	20,000
태문(경기 수원시)	20,000
호석(경기 고양시)	20,000
훈택(서울 성동구)	20,000
희왕(전북 군산시)	20,000
<b>합 계</b>	<b>2,270,000</b>

단체증보비(6~9월) 단위:원	
이름	금액
인천시종친회	500,000
부산종친회(2월 입금)	300,000
세마공논산종중	300,000
마포구종친회	200,000
평해공파수원종중	200,000
곡성군종친회	100,000
송탄종친회(수동)	100,000
장도공파종중	100,000
<b>합 계</b>	<b>1,800,000</b>

인명록 구입 찬조금 단위:원	
이름	금액
추태 (전)중앙회장	4,500,000
참판공파안산반월종중	1,000,000
부산시종친회	400,000
삼량 수석부회장	200,000
충의공파종중	120,000
삼등공파종중	100,000
평간공파종중	100,000
한결회	100,000
<b>합 계</b>	<b>6,520,000</b>

## 섬 여행지 추천, '살고 싶은 섬' 1호 두미도

아름다운 섬 홍보 및 안내 지도를 만드는 한호수일가



통영 두미도

다양한 자원을 살리고 편의성을 높이는 등 남해안 섬마을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청정 섬, '살고 싶은 섬' 1호로 선정된 통영 두미도(頭尾島).

통영항에서 뱃길로 한 시간 이십분, 보석을 뿌려 놓은 듯 아름다운 섬들 중 한 곳, 해산물과 산약초, 풍부한 해양생태자원이 큰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뱃길 너머, 동물 머리에 꼬리가 붙은 형상이라는 두미도는 해안 길이 11km의 작은 섬으로, 산 중턱에 도로가 있어 섬을 한 바퀴 돌며 바라보는 바다 풍광은 그야말로 절경인 곳으로 최근에는 입소문을 타면서 이주민과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한다.

두미도를 방문하고 첫 눈에 반해 아예 이주를 하고 두미도만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섬 안내 지도를 만들고 있다는 한호수 일가는 캐나다에서 이십 여

년 동안 관광업을 하었다고 한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두미도의 아름다움을 다 잘 모르는 것 같다. 어떤 게 있는 지도 잘 설명되어 있는 곳이 없어서 두미 9경 등 장소들을 지도에 표기 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일 보러 나갔다가 들어오면 편안하고, 마음의 쉼터라는 느낌이 든다. 두미도의 섬 모양에서 나오듯이 인생의 어떤 쉼표, 휴식처 같은 섬이다. 살기 좋은 섬에 정착한 만큼 마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

둘레길이 조성되고 숲 산책길이 완공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는 한호수일가의 바람처럼 물 맑고, 공기 좋고, 인심 좋아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섬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가을 섬 여행지로 추천해 본다.

# 2021 만해축전 '희망·극복' 주제로 개최

## 만해마을 및 인제 일원에서 만해대상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청주한문의 위대한 선각자, 한국 근대사의 어둠을 밝힌 선승이자 위대한 시인이며 독립운동가였던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1879~1944) 선사를 기리는 2021 만해축전이 '희망·극복'을 주제로 지난 8월 12일부터 만해마을 및 인제군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강원도, 인제군, 동국대학교,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에서 후원, 올해 23회째를 맞는 만해축전은 한국 근현대사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인 만해(萬海)의 사상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이다. 금년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화예술제 전시·공연 행사 등 사전 행사를 취소하고, 참석자를 49명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행사 기간도 12~13일 양일간 집중적으로 열렸다. 이밖에 제23회 전국 고교생 백일장은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었고, 제19회 님의 침묵 서예대전도 최소 인원으로 펼쳐졌다. 한편 한용운선사를 기리는 학술세미나, 서예대전, 청소년백일장, 야구대회 청소년캠프, 음악캠프 등은 올해 10월까지 열릴 예정이다.

만해축전의 백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고 순국한 만해의 생명·평화·겨레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1997년 제정해 이어오고 있는 만해대상은 '평화', '실천', '문예' 세 부문에 걸쳐 빼어난 업적을 거둔 인물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세계 각국의 다양하고 저명한 인사들에게 시상되어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올해의 평화부문 대상은 "음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온 세계적 음악인" 다니엘 바렌보임이 수상했으며, 실천부문 대상은 "한국 불교계 사회복지 사업의 선구자"인 자제공덕회 이사장 보각스님과 노숙인의 의료지원과 식사,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성남 안나의 집 대표 김하종 신부가, 문예부문 대상은 한국 현대소설을 대표하며 "인간의 내면 탐구 소설의 귀감"으로 평가받는 오정희 작가와 "한국 발레 역사에서 누구보다 먼저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은 "오늘 우리는 만해대상 시상식을 통해서 인류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분들을 모시고서 함께 축하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모든 분야에서 평화, 화해, 이웃에 대한 자비, 인류애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치하했으며, 실천부문대상을 수상한 보각스님(자제공덕회 이사장)은 "만해선사와 무산스님께서 한국불교가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알려주신 조사이자 선지식이다. 두 어른스님들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생각하면 저에게는 너무 과분하고 또 수상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제가 노력하고 뿌려온 불교사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관계자, 수상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회 복지의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고 숲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만해는 선사, 시인, 독립운동가로 일생을 조국독립과 겨레사랑으로 일관, 20대 중반에 백담사로 출가 승려가 된 후 한국불교의 개혁과 대중화를 주창한 「조선불교유신론」을 펴내는 한편 시·소설 등의 창작활동을 통해 사회개혁과 정신개혁을 주도하면서 1926년 88편의 시를 모은 그 유명한 시집 「님의 침

묵」을 출판, 생명사상·사랑의 철학을 겨레의 가슴에 심어주었다. 3·1운동 때는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으로 참여해 독립운동가로 활약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나 애석하게도 조국의 광복 1년 전인 1944년 6월 29일 서울 성북동 심우장(壽牛莊)에서 광복을 불과 1년 앞두고 세수 66세(법납 40세)로 별세했다. 그가 별세한 지 77년이 되는 오늘날에도 그의 자유사상, 평등사상, 민족사상, 평화사상은 여전히 소중한 민족사적 덕목이 되고 있다.

## 만해 한용운선사 탄신 142주기 추모다례 봉행

### 8월 29일, 홍성 생가지일원 및 사당에서

지난 8월 29일, 독립운동가이자 승려·민족시인으로 한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친 만해한용운선사의 탄신 142주년을 맞아 충남 홍성군 결성면 소재 만해 생가지 사당에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제26회 만해 추모다례'를 봉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만해한용운선사기념사업회(이사장 웅산대종사)와 홍성문화원(원장 유환동)이 주관하고 덕숭총림 수덕사와 홍성군, 충남서부보훈지청 후원으로 봉행된 추모다례에는 만해한용운선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웅산대종사와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 조계종 홍성군주지협의회장 덕원스님,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 김석환 홍성군수, 홍문표 국회의원, 홍경화 충남서부보훈지청장, 유환동 홍성문화원장, 김성권 전 대한불교청년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국민의례에 이어 유환동 홍성문화원장

인사말, 수덕사 총무국장 정경스님의 행장 소개,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 축원, 기관장 추모사, 웅산대종사 법어, 님의 침묵 시낭송, 헌화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추모사에서 "만해한용운 선사의 탄신 142주년을 맞아 한평생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만해정신으로 코로나19의 위기를 이겨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만해한용운선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웅산스님은 법어에서 "만해 선사는 일본의 억압과 굴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면서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시다가 열반하셨다"며 "오늘 추모다례를 통해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다짐하고, 만해정신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이어 홍성군립무용단의 진혼무 공연과



이사장 웅산대종사가 진영에 참배를 하고 있다.

수덕사 총무 정경스님의 행장 소개,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의 축원과 함께 김석환 홍성군수를 비롯한 참석인사의 헌향, 헌다와 추모사, 만해시낭송, 헌화 등으로 진행되었다.

만해추모제는 매년 8월 29일 만해스님 탄신을 기념해 조국독립에 앞장섰던 만해스님의 나라사랑 정신과 문학세계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한용운 선사의 사당이

있는 홍성군 결성면에서 추모다례를 봉행하고 있으며, 홍성군은 지난 2007년 만해의 사당이 있는 고향 결성에 만해문학체험관을 개관하고 민족시비공원을 조성했으며 이곳을 통하는 도로주변에는 무궁화꽃을 빼곡하게 심었다.

한편, 정부는 만해 한용운 선사의 독립운동에 대해 지난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했다.

# 「천직의 길, 네 번 넘어지고 다섯 번 일어났다」

## 韓甲洙 명예회장 (제51대 농림부 장관) 평전 출간

공직이란 나라사랑, 국민봉사!  
제51대 농림부장관을 역임한 설송(雪松) 한갑수(韓甲洙) 명예회장(제23~24대 중앙회장)의 영광과 시련, 좌절 극복 '공직애국' 일생 이야기, 한갑수 장관이 걸어 온 공직의 길.  
매일경제 배병후 주필이 묻고 한갑수 장관이 답하며 사실 그대로, 진실에 가깝게 기술한 「천직의 길, 네 번 넘어지고 다섯 번 일어났다」한갑수 장관의 평전이 출간(출판 한국산업경제연구원.양장본 416p, 교보문구 비치) 되었다.  
한갑수 장관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패스로 화려하게 관문에 진입했지만 여러 차례 불운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집념으로 재기한 '공직애국'의 큰 발자취를 기록했다.  
경찰직 해직과 복직, 수산직·농림직 영전과 추락. 다시 미 유학 후 1978년 무소속으로 10대 국회에 진출했지만 신군부의 국회 해산으로 실직. 한참 뒤에 환경처, 경제기획원 차관으로 복직했다가 공직 종료. 그 뒤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CEO로 천문학적 이익 배당 등 공기업 경영모델 확립에도 성공했다.

다시 정치적 무연고인 DJ정부 농림부 장관으로 입각, '장관직 걸고' 농어가 부채경감 공약이행 관철, 새단금 방조제 분쟁중단 조정, 퇴임 후엔 부총리급인 농어업특위 위원장으로 추곡수매제 폐지, 변동식물제 도입 등 농정혁명을 이룩하였다. 이로써 당시 정부 내 갈등분쟁조정 최고명수라는 평판 아래 당대 최고난도로 꼽힌 경주 방폐장(원전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까지 '화약고 전담'형 멸사봉공의 신기록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도 초, 제반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제23대 중앙중진회장에 추대된 이후 제24대 회장을 수락하고 문중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며 전국 100만일가들의 적극적인 참

여 속에 청주한문 최고의 염원사업인 청한각을 충북 영동 난곡리에 수려하게 건축하는 등 시조탄생지의 성역화 사업을 훌륭하게 마무리 하였고, 동시에 청주한씨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된 한글·한문병기 인터넷대동족보를 재구축하여 개통(제7교 대동족보 편찬 근간)함으로서 규모, 기능, 디자인 등 종합적인 면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는 면모를 갖추는 등 중앙중진회가 존립해야 할 대형사업의 완성 등으로 청주한문 종사 기반에 대역사를 구축하신 한갑수 명예회장의 평전 발간을 축하드리면서 가내 행운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교보문고의 책 소개 및 출판사 서평에서 발췌 인용 참고함 - 편집자 주)

## 청한장학생 장천수 군, 판사 임관

### 韓喆洙 (前)중앙중진회 감사의 외손

2011년 청한장학생으로 선정된 장천수(사진)군이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고시(제54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45기)을 수료한 후 법조경력 쌓아 지난 10월 5일 판사로 임관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청주한씨중앙중진회(청한장학회)에 감사의 편지를 전해왔습니다.  
장천수군은 중앙중진회 감사를 역임하신 한철수(판사공과 31세)자문위원의 외손자로, 장천수군의 판사 임관을 축하하며 입신양명을 기원하는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서신 내용 원문을 게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조부님과 어머니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외조부님과 어머니는 성실, 정의와 같은 가치를 많이 강조하셨고 이러한 외조부님과 어머니의 교육 덕분에 법관에 임용될 수 있는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주한씨 종중은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을 주신바 있습니다.

2011년 감사하게도 저를 장학생으로 선정해 주셨고 소중한 장학금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위 장학금으로 저는 마음 편히 더욱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2012년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또 판사 최종 임용을 통지 받았을 때 저에게 주셨던 장학금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짧은 글로라도 제 감사함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표합니다.

앞으로도 외조부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관이 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한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한철수님의 외손자 장천수 드림

이름 : 장천수(사진, 한철수님의 외손자, 모 한효순)  
나이 : 만33세  
학력 : 연세대학교 졸업  
경력 : 사법연수원 45기, 육군 군법무관, 법무법인 (유)울촌, 판사 임관(10/5)

안녕하십니까?  
한철수님의 외손자 장천수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45기로 수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군 법무관 및 법무법인 (유)울촌에서 법조경력을 쌓은 후 2021년 10월 5일 판사로 임관되었습니다.

##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한경수일가 부임

지난 8월 2일 한경수일가(사진, 통화정책국 부국장)가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으로 부임하였다.  
전라고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경수 신임 본부장은 1994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이후 통화정책국, 금융통화위원실, 조사국 등에서 근무한 통화정책 및 경제조사 전문가로 뛰어난 업무 수행능력과 온화한 성품을 겸비해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한 신임 본부장은 "지역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전북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경제의 주요이슈 및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지자체 및 학계 등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전했다.

## 시조 태위 위양공부군 신축년 세향 공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봉행 합니다」

- ◆ 일 시 : 2021년 11월 5일 (음력 10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
- ◆ 장 소 : 시조부군 묘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547번지)
- ◆ 의 례 : 시조 세향, 4위단 (2·3·4·5세조) 세향 봉행
- ◆ 참석범위 : 종파문중 및 광역시도 별 10인 내외 (회장단 중심)
- ◆ 식전행사 : 중앙회장 인사, 내빈 축사 및 격려사

종현님의 건승하심과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는 11월 5일(음 10월 1일, 금) 시조부군의 세향 봉행일은 시조님의 음덕을 기리는 송조·화합문목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금년에도 회장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참석인원을 제한하여 봉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고 종원 및 주민분들의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사항(청주시청과 마을주민의 전국행사 개최 금지 강력 권고)임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중앙중진회로 사전 연락 요합니다 (02-720-6370) 「서울지역은 당일 오전 8시에 중앙중진회 사무실 앞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청원-상주 고속도로 문의C 출구에서 우회전 후 약 4km정도 오시면 시조묘역 표석 앞 삼거리 연결)

##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청주한씨보」는 한씨일가들의 갖가지 정보를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따라서 많은 정보가 게재될수록 유익한 좋은 소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종파와 각 지역중진회의 행사, 임원 교체 등 인사동정, 한씨에 얽힌 정보, 일가들의 선행과 효행 등에 관한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기사에는 관련인사들의 이름, 행사일과 장소, 행사내용 및 동정(動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관련 사진도 함께 행사가 끝나는 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 편집실)